



순창군이 향가목교 LED경관 조명 설치 등 향가오토캠핑장 관광시설을 대폭 강화하면서 500만 관광객 유치에 청신호가 켜졌다.

순창군, 향가목교 LED 설치

시간에 따라 변화되는 파노라마식·자전거 탄 모습 형상화 연출

순창군이 향가목교 LED경관 조명 설치 등 향가오토캠핑장 관광시설을 대폭 강화하면서 500만 관광객 유치에 청신호가 켜졌다.

군은 최근 7억원을 투자해 추진한 향가오토캠핑장 정비 사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 완료로 지난해 문을 연 향가오토캠핑장 주변 볼거리와 체험거리가 대폭 강화됐다.

특히 향가목교 LED경관조명 설치로 지역의 야간관광명소로 발돋움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향가목교는 일제강점기 세워진 교각을 활용해 자전거길로 만든 독특한 관광자원으로 길이가 220m를 넘는다.

군은 목교에 시간에 따라 변화되는 LED파노라마를 설치해 불빛이 만들어 내는 몽환적 분위기를 연출했다. 또 자전거를 탄 모습을 형상화한 야

간 조명도 연출해 향가오토캠핑장만의 볼거리를 창출했다.

군은 캠핑족들이 밤 늦게까지 활동하는 점을 감안해 이반사업에 공을 들였다. 향가목교와 더불어 이번 사업의 주축이 된 곳은 향가터널이다.

군은 향가터널 내부에 다양한 새들을 형상화한 모빌을 설치해 자전거 라이딩 시 새들과 함께 달리는 독특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또 벽면에 자전거를 탄 모습의 벽화 조형물을 설치하고 관광객들이 직접 타일을 만들어 장식하는 체험거리도 만들어 관광객들이 재미와 심을 동시에 느낄 수 있게 만들었다.

자연스러운 나무를 활용한 벤치도 만들어 책도 보고 휴식도 취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었다.

이외에도 군은 향가오토캠핑장을 나

타낼 수 있는 다양한 포토존을 설치했다. 캠핑부위가 물린 나는 침낭 포토존을 비롯해 고양이, 쥐 개를 활용한 포토존 등 가족단위 관광객이 추억을 쌓을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 산책로에도 특징적 계이트 조형물도 만들었다.

군은 현재 오후 7시부터 10시까지 야간 조명을 시험적으로 가동하고 있으며 다음주부터는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황숙주 군수는 "향가오토캠핑장에 LED조명을 이용한 새로운 관광자원이 완성됐다"면서 "향가오토캠핑장이 전국적 유명 캠핑장으로 발돋움하는 것은 물론 독특한 야간경관을 이용한 관광명소로도 큰 인기를 끌 수 있을 것 같다"고 기대감을 표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남원시, 엔이에스티남원과 협약 체결식

150억 정도 투자... 허브 힐링체험·숙박·놀이기구·볼거리 등 시설 설치

남원시에서는 지리산웰빙허브산업특구 방문객 유치와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특구내에 허브 힐링체험과 숙박, 허브제품 및 화장품 전시·판매, 음식점(식음료), 놀이기구, 볼거리 등 관광 활동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허브복합토피아관 등 허브밸리 전체를 위탁 운영 할 수 있는 민간투자자로 (주)엔이에스티남원을 선정하고 지속적인 협업을 통하여 지난 5일 협약 체결식을 가졌다.

협약내용은 허브밸리 30만5,919㎡(시유지) 중 사업비 150억 정도를 투자하여 아로마테라피관, 숙박시설을 신축

(건축연면적 5,356㎡)하고, 건강과 재미, 흥미를 느낄 수 있는 참여도가 높은 다양한 수익성 사업제안 시설과 위탁운영에 관한 내용이다.

그 동안 시에서는 특구지역내 볼거리와 체험 등의 공간을 조성하여 연중 다양하게 허브를 보고, 체험하고, 먹고, 즐길 수 있도록 완성도 높은 공간을 가진 체류형 관광지로 거듭나고자 허브밸리의 랜드마크인 허브복합토피아관을 2012년 12월 착공하여 2015년 5월 건물을 완공하고 내부전시 및 실내조경설치 공사를 2016년 6월 완공하였으며, 2017년 6월 개장을

목표로 실외조경 및 부대시설공사를 발주하였다.

이번 협약으로 체류형 관광지에 반드시 필요한 휴식과 치유의 스톱 공간인 아로마테라피관 및 숙박시설 등 민간투자자의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면 허브밸리 완성도가 높아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민간투자자의 투자 사업이 이루어지는 2017년 이후에는 그 동안 활성화되지 않았던 지리산 허브밸리가 숙박 시설과 볼거리 즐길 거리가 충만한 체류형 관광지로 거듭 태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남원=유영철 기자

고창군, 노래로 부르는 영어동화 운영

10일부터 작은도서관에서

고창군(군수 박우정) 작은도서관에서 오는 10일부터 '노래로 부르는 영어동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 문화행사는 지역 내 유아들에게 세계 유명 동화작가들의 영어동화 책을 통해 낯선 외국어를 노래로 접하며 즐겁게 배우고 경험해 보는 시간으로 신수정 영어동화구연 지도사가 강의를 진행했다.

아산편 선운산 작은도서관은 오는 10일과 17일, 24일, 31일 진행되며, 무장편 글샘 작은도서관은 오는 11일, 25일 다음달 1일과 8일에 진행된다.

그수편 해마루 작은도서관은 오는 12일 19일 26일, 다음달 2일에 진행되고 대신편 큰별도서관은 오는 13일, 27일, 다음달 3일과 10일에 각각 진행된다.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다.

이번 프로그램은 전북도에서 공모

한 '독서문화프로그램 지원 사업'으로 지역 내 교육기관의 수요조사를 거쳐 사업을 추진해 선정됐으며 학습효과를 높이기 위해 8회 추가 운영한다.

도서관 관계자는 "3년 연속 '전북도 작은도서관 독서문화프로그램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된 이번 프로그램은 참여 아동들에게 즐거운 학습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공모사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프로그램의 운영으로 문화소외지역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임실군, 복지자원 조사 실시

공공분야·민간기관·단체 등

임실군은 오는 10월 말까지 공공분야 및 민간기관, 단체 등을 대상으로 '복지자원 조사'를 실시한다.

군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복지대상자 등 지역주민이 활용할 수 있는 복지자원을 조사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다양한 복지요구에 능동

적으로 대처해 나갈 계획이며, 또한,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에 등록된 자원을 관리해 일자리, 주거, 일상생활, 신체건강 등 9개 분야 자원 중 중복된 자원을 정비하고 관내 신규자원 발굴 및 조사도 병행할 방침이다.

이울러, 정리 발굴된 인적·물적, 공식·비공식 자원을 비롯해 기타 프로그램 자원 등 모든 자료는 소외계층

복지대상자를 공공 및 민간 자원과 연계해 지원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12개 읍·면과 복지 지원망 구축에 앞장설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조사를 통해 주민들이 필요한 서비스를 한 번에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관리하고 민간기관과 공유할 것"이라며, "충족한 복지지원망 구축으로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흥영 기자



클린순창운동, 농촌개선 '모범사례'

페비닐·폐농약병 수거에 큰 실적 나타내

순창군이 클린순창운동 추진으로 농촌환경개선 운동의 전국적 모범으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농촌환경 오염의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는 페비닐, 폐농약병 수거에서 큰 실적을 나타내고 있다고 군 측은 밝히고 있다.

군은 지난 5일 군청상회의실에서 부서별 실무계장들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클린순창 만들기 실천과제 점검 회의를 진행했다.

이번 점검회의에서는 신동원 부군수 주재로 진행됐으며 부서별로 추진되고 있는 42개 사업에 대해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부진상황에 대해서 대책을 논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특히 눈길을 끄는 성과는 페비닐과, 폐농약 수거 실적이다. 군은 올해 페비닐 수거량이 8월말 현재 424톤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같은 시기 347톤 대비 77톤이 증가했다. 폐농약병수거 실적도 눈에 띈다. 폐농약병은 무분별하게 버려져 생

태게 파괴까지 나타나는 심각한 오염원이 되고 있다.

순창군이 8월말까지 수거한 실적은 4,830kg이다. 농약병으로 환산하면 약 7만 7천개에 달하는 수 치다.

이외에도 군은 47개 민간단체들이 자발적으로 추진하는 행복출씨 임업사업을 추진해 지역 환경개선에 앞장서는 다양한 분야에서 클린순창 운동을 추진하고 있다.

신동원 부군수는 "클린순창만들기는 보다 나은 선진 군으로 가기 위한 의식 개혁운동으로 전 군민이 동참하는 운동이다"며 "앞으로도 지역 현실에 맞는 실천 과제를 발굴하고 주민들과 함께 추진해 아름다운 지역으로 만들어 가는데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한편 순창군은 11월 중 읍·면 클린순창만들기 추진실적을 평가해 시상식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순창=이양원 기자

고창농악 문화재 발표회 내일 개최

전북도 무형문화재 제7-6호 고창농악약보존회가 호남우도 고창농악 전승을 위해 매년 실시하는 문화재 발표회를 오는 8일 고창의 최대 전통문화축제 '제43회 고창 모양성계' 기간 중 고창읍성 앞 광장에서 실시한다.

이번 고창농악 문화재 발표회는 고창농악 이수자 및 전수자 50여명이 참여해 고창농악의 백미인 꾸리북 동작을 멋지게 구사하는 곁소고춤과 화려한 장구가락과 발림의 설장구, 쇠

꾼들의 화려한 부포놀이 등 다양한 개인놀이와 고창농악의 구성진 '판굿'으로 고창농악의 진수를 선보일 예정이다.

구재원 고창농악보존회 사무국장은 "집단적인 신명풀이를 보여주는 대표적 민속예술 농악으로 '고창 모양성계'를 찾은 고창 주민들과 관광객들의 흥겨운 '한판'이 될 수 있도록 준비했으니 군민과 관광객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임실치즈과학연구소, 임실치즈&식품연구소로 변경

군 특화자원으로 확대할 방침

(재)임실치즈과학연구소(이사장 심민기)가 '(재)임실치즈&식품연구소'로 명칭을 변경했다고 6일 밝혔다.

지난 2007년 지식경제부, 전북도, 임실군이 50억의 예산을 공동 출연해 건립한 '임실치즈과학연구소'는 그동안 치즈 및 발효유 연구개발을 위해 노력해 왔으나, 지난달 29일 '(재)임실치즈&식품연구소'로 명칭을 변경한 후 치즈 및 발효유로 한정된 연구분야를 군 특화자원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임실치즈의 우수성과 지역 농

식품 소재를 결합해 신제품으로 개발하고 이익은 낙농업체, 유가공업체 및 농가와 공유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심민 이사장은 "청정 임실에서 생산된 치즈 및 특화자원을 바탕으로 다양한 연구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지역 모든 농가가 혜택 받을 수 있도록 연구소가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연구소는 지난 5년간 치즈와 유제품 관련 다양한 연구를 바탕으로 특허 출원된 기술을 신제품에 적용시켜 지역 유가공업체에 기술 이전을 통해 소득향상에 기여해 왔다. /임실=진흥영 기자

남원시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도내 최다 학습자 수상

교육부가 주최하고 국가평생교육진흥원과 전라북도청 등이 주관하는 전국 성인문해교육 시화전에 참가한 남원시 문해 학습자 5명이 우수상, 글자꽃상, 도지사상 등 전라북도에서 최다 학습자가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이에, 남원시가 한글날을 맞아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남원시청 로비와 강당에서 '문해, 인생에 글자꽃이 피어 나다'라는 주제로 전국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수상작과 남원시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참가자 등을 전시하는 시화전을 개최하였다.

문해교육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알리고 지역 문해교육 활성화를 위한 이 자리는 관내 11개 문해교육기관의 학습자, 강사 등 총 210여명이 참여했다.

이환주 남원시장은 상을 받지 못했지만 아흔이 다 된 나이에 소중히 써 내려간 어르신들의 작품에서 인생 100세 시대에 행복으로 가는 남원의 미래가 보이며, 2016 전라북도 중립검정고시에 합격한 평생학습관 학습자 3명과 시화전 수상자, 문해 강사와 담당자를 격려했다. /남원=유영철 기자

고창경찰, 범죄예방활동 강화 나서

고창경찰서(총경 전순홍) 부안파출소에서는 최근 생활안전협의회 회의에 참석하여 면민이 행복하고 안전한 부안을 위한 적극적인 협조치안을 당부했다.

이 날 자위방범 강화 등 주민안전 확보와 지역사회 경찰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운영되고 있는 부안파출소 생활안전협의회 정기회의에 참석하여 범죄예방활동 강화를 위한 마을 CCTV 설치, 교통안전 선진화를 '안전매기, 정지선 지키기', '켜자! TWO라이트, 지키자! TWO라이트', 음주운전 안하기, 오토바이 안전모 착용하기와 4대약 근절 및 평온한 치안확보를 위한 고창경찰 활동사항에 대해 설명하고 적극적인 협조치안을 당부했다.

부안파출소 생활안전협의회 위원장은 "내가 살고 있는 부안면 자위방범 강화를 위해 운영되고 있는 단체답게 CCTV 추가 설치를 위한 노력 및 교통법규 지키기 생활화 등을 통해 제 몫을 다하자"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임실호국원, 국유림 산림경영 보고회

국립임실호국원(원장 신준태)과 서부지방산림청(청장 김영철), 무주국유림사업소장(김중세) 등이 배석한 가운데 지난 5일 국민들이 즐겨 찾는 아름다운 호국공원 조성을 위해 국립임실호국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유림에 대해 산림경영대행 착수보고회를 가졌다.

이번 착수보고회는 국립임실호국원 산림경영 기본계획수립 방안제시를 통한 중·장기적 마스터 플랜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었다.

1차적으로 2016년 하반기 숲가꾸기 사업을 병행하여 주변 니기다 소나무 등 잡목제거를 시작으로 2017년도 편백, 이팝, 산딸나무 등 조림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국립임실호국원 관계자는 "이번 기본운영역사업은 국도의 효율적 관리는 물론 계절별 수종을 식재하여 추모의 힐링공간을 제공하는 의미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상호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임실=진흥영 기자

순창군, 보행자벽면형 도로명판 설치

순창군이 특별교부세 1,300만원을 확보해 관내 길 찾기가 어려운 좁은 골목길이나 이면 도로 등에 보행자를 위한 벽면형 도로명판 261개와 기초 번호판 176개를 설치해 순창을 찾는 방문자들이 길을 찾는데 큰 도움을 주고 있다.

현재 설치된 도로명판은 차라음 중심으로 설치되어 있어 이면 도로나 골목길 등을 이용하는 보행자들이 길 찾기에 다소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에 설치된 벽면형 도로명판은 전신주 등에 높게 설치된 차라음 위주 도로명판과 달리 건물 담장에 보행자 눈높이에 맞춰 1.5미터에서 1.8미터 높이로 설치됐다.

벽면형 도로명판은 벽면에 부착돼 보행자들이 쉽게 목적지를 찾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기초 번호판은 주위에 건물이 없어 위치 찾기가 어려운 장소나 도로명주소 안내시설이 부족한 도로변 전신주에 설치되어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순창군 관계자는 "2017년에도 완료가 잦은 골목길 이면 도로에 벽면형 도로명판과 건물이 없는 지역에 기초 번호판을 확충하여 보행자가 목적지를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시설물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순창=이양원 기자